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타비타 의인

루가 제 6주일

성 타비타 의인, 성 마르끼아노스 순교자  
제 3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3조 부활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갈라디아 1:11~19 / 봉독서 597
- 복음경 : 루가 8:27~39 / 126, B 7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 성 타비타 의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타비타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25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그리스말로 도르가라고도 불리던 타비타 의인은 요빠에서 훌륭한 자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도행전9:36) 여인으로, 병이 들어 죽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 사도 베드로를 오도록 불렀고, 그 때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몰려 와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 있을 때에 만들어 두었던 속옷과 겹옷을 보여 주었습니다.”(사도행전9:39) 타비타 의인은 직접 만든 속옷과 겹옷을 팔

아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교적, 교회적 자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직접 우리의 손으로 일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자선을 기획하는 것에만 매달리고 “사회적 배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께서는 “자선을 연극처럼 꾸며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믿음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룩함의 기반입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히브리서11:6)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운동경기의 훈련 같은 수련, 수도자들의 고행 수련, 의인들의 노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성취물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요한14:1)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어라.**”(마르코1:15)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더라도 복음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믿는 것이 쉽습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믿음이 어렵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성령은 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누구를 도와줄까요?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가진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겸손의 덕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고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믿음은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우리들의 마음이 믿고 따르도록 뒤야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분석에 따르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두 사람의 사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서로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여인이 남자에게 마음을 주면 줄수록, 더욱 더 남자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고, 신뢰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가17:5)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주님께 “주여, 당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더욱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진정한 믿음과 구원을 찾을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서론)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안식하신 아토스산의 모세 수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정교인인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일부를 옮겨봅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 성화(聖化)와 신화(神化)라는 아주 폭넓은 주제의 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내적 정화와 신비의 성사에 참여하는 생활이 함께 결합된 기도의 삶은 힘든 시기를 사는 교인들이 다시 새롭게 되도록 크게 도와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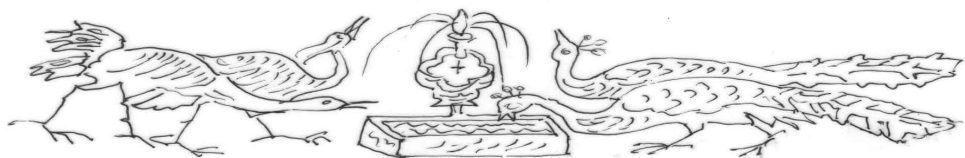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저자 자신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거룩한 교부들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풍부한 자료들에서 빌어온 것들입니다. 또한 아토스산에서 살았던 현대의 영적인 원로들에게서 열심히 주워 모은 값진 가르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영적으로 상승해 가는 여행에는 여러 단계와 서로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이사야 교부(4세기)는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탐구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언제나 친구처럼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의 일에 매이지 않을 것이며, 어려움을 겪거나 죄를 짓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대교구

####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동정

지난 10월 17~18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1단계로 진정되어 요한 박인곤 보제와 함께 전주 성모안식 성당을 방문하여 일라리온 정종혁 사제와 함께 토요일 대만과와 주일 조과 및 성찬예배를 집전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성모안식 성당 신자들과 함께 영적 가르침을 통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다 함께 재건축중인 새로운 성당을 방문하여 건축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중보로 새로운 성당이 아름답게 완공되기를 기도합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주일 성찬예배 후 스페인계 미국인 Rolando Joaquin Gutierrez Jr. 교우와 러시아인 Julia Gareeva 교우가 로마 사제가 집전한 결혼 성사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행복과 평화가 가정에 항상 머물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활동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장년회 회원들은 지난 10월 17일(토)에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겨울맞이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하여 수도원에 도착한 후 먼저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아가티 수녀님과 함께 아침예배를 드리고 수도원 내부와 외부를 정리하고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대만과와 석후소과를 드리고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간예식



10월 26일(월)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